

'황금세대' 87라인 막을 자 누구냐

그랑프리 4연패 정종진 필두로 각 지역 경륜팀 87년생 이끌어 패기철철 89·90년생이 대항마



18기 박용범 19기 류재열 21기 황인혁 22기 최래선 23기 강호

경륜 선수의 전성기는 통상 30세 전후다. 일반적으로 20대 중후반에 경륜선수로 데뷔해 2~3년간의 적응기를 거치며 힘과 기량이 최고점을 찍는다. 현재 경륜을 대표하는 황금세대로 불리는 87년생(88년 1·2월생 포함)들이 활약을 펼치기 시작한 것도 30세 전후부터다. 2015년도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박용범(18기, 33세, 김해B, S1)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연속 그랑프리 우승의 대기록을 달성한 정종진(20기, 33세, 김포, SS)까지 87년생들은 그랑프리 경륜만 5회 연속 우승했다. 이 기록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경륜계 반방에 불과했던 충청권의 위상을 수도권과 겨룰만큼 올려놓은 황인혁(21기, 33세, 세종, SS), 경북권의 에이스 류재열(19기, 33세, 수성, S1), 전라권의 희망 최래선(22기, 33세, 전주, S1), 창원권을 대표하는 선형형 강자 강호(23기, 33세, 김해B, S1)까지 각 지역 경륜을 대표하는 선수들에게는 87년생이

있다. 아직까지 전력이 건재하고 경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33세가 된 올해에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후배(출생연도 기준)들이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87년생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89년생(90년 1·2월생 포함)들이다. 창원권의 명실상부한 에이스 성낙송(21기, 30세, 상남, S1), 단거리 스피드가 압권인 윤민우(20기, 30세, 상남, S1), 동서울팀의 차세대 에이스 정해민(22기, 30세, 동서울, S1), 전라권의 실질적 에이스 이도뜸(20기, 31세, 전주, S1), 미원팀의 희망 양승원(22기, 30세, 미원, S1) 등 황금세대인 87년생에 밀리지 않는 면면이다.

이밖에 정종진, 신은섭(18기, 33세, 동서울, SS)과 함께 수도권 삼각편대를 이루는 정하늘(21기, 30세, 동서울, SS)을 필두로 김포팀의 차세대 에이스 정정교(21기, 30세, 김포, S1), 우수급 판도를 흔들고 있는 장경우(25기, 30세, 미원, A1)

가 합류한 90년생도 언제든지 87년생을 위협할 세대로 꼽힌다.

하지만 경륜 전문가들은 "89년생과 90년생들이 젊음과 패기를 앞세워 87년생 선수들의 아성을 위협할 수는 있으나, 그림에도 당분간은 황금세대인 87년생의 정상권 유지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87년생이 가장 많은 슈퍼특선급을 유지하며 질적인 우위에 있고, 특선급에도 가장 많은 인원을 있어 양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체계적인 영양섭취와 과학화된 훈련으로 선수활동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30세 전후가 전성기'라는 말도 앞으로 달라질 수 있다. 아직도 전성기가 진행 중인 87년생의 기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20기 정종진

뉴스타트 워크숍, 경정·경륜 미래 제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경륜경정총괄본부는 1월 30일 '2020 경륜경정 뉴스타트 워크숍'을 개최했다. 경륜경정총괄본부, 창원경륜공단, 부산공단스포원의 임원과 실·팀장 등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해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전략과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공유했다. 경륜경정 사업 중장기 발전을 위한 온라인 발매, 해외 송출, 용병 및 여자 선수 도입 등에 대한 집중 토론 및 국내외 스포츠 산업 동향과 해외 온라인 배팅 운영사례 등을 소개했다. 조재기 이사장은 직접 강연자로 나서 '프로 스포츠로서 경륜·경정이 나아가길 방향'을 제시했다.

경륜·경정장, 코로나 예방 긴급 대응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긴급 대응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경륜·경정장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식 온도계를 비치해 입장객의 체온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37.5도 이상인 고객은 귀가시키고 있다. 고객접점 근무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1차 4회, 2차 1회로 승틀과 연대울 모두 50%를 넘으며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선회 타이밍이 한 템포 빨라졌다. 전술도 확실하게 감아줄 때는 휘갈고, 여의치 않다 싶으면 공간을 파고드는 것이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반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끝까지 선두 경쟁을 하는 승부 의지를 선보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ang82@donga.com

심상철, 경정 첫 회차부터 10연승 '쾌속질주'

출발 위반 부담에도 스타트 주도 손제민·서희도 초반 활약 돋보여

2020시즌 초반 탁월한 수면 적응력을 뽐내며 쾌속질주를 하는 경정 선수들이 있다. 선두 주자는 심상철(7기, 38세, A1), 2019 쿠리하리배 결승전에서 출발위반을 범해 그랑프리 경정 출전의 꿈을 접었지만, 12월 마지막 회차를 우승하면서 심기일전했다. 올해 첫 회차부터 10연승 전승 행진을 달리고 있다.

심상철의 최대 장점은 탁월한 준비력이다. 좋은 모터를 받아 이를 활용해 입상권을 공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대의 상황에서 약조건을 기가 막히게 극복한다. 중하급과 하급 모터를 배정받아 그 이상의 기력으로 끌어올리려던 프로펠러의 역할이 가장 크다. 여러 가지 모터와 보트 세팅을 맞추는 노하우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펠러의 성능도 무시할 수 없다.

심상철이 남은 시즌 활약하는데 걸림돌은 내년 10월 말까지 출발위반 소멸일이 남아있어 심리적으로 부담을 안고 가야 한다



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주에서 의욕적으로 스타트를 주도하고 있으나 간혹 확실하게 흐름을 끌고 가지 못해 노련미로 위기를 탈출하는 경우를 가끔 보이고 있다.

4회차에서 특별승급에 성공한 손제민(6기, 38세, A2)의 활약도 돋보인다. 1년에 두 번 있는 등급 조정 외에 경정 선수들이 승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7연속 입상뿐인데, 개장 후 1차 4회, 2차 5회를 이어가며 올해 첫 특별승급을 기록했다. 0.2초대의 평균

스타트를 기록하고 있다. 연속 입상이 대부분 센터와 아웃코스였다는 점에서 더 값진 승급으로 평가받는다. 빠른 시속을 앞세운 1턴 선점 능력도 탁월하지만 상대의 허점을 파고드는 역습과 추격 능력도 우수한 것이 상승세의 원동력이다.

신형 강자로 올라선 서희(11기, 34세, A)도 올해 7회 출주, 1차 4회, 2차 1회로 승틀과 연대울 모두 50%를 넘으며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선회 타이밍이 한 템포 빨라졌다. 전술도 확실하게 감아줄 때는 휘갈고, 여의치 않다 싶으면 공간을 파고드는 것이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초반 경쟁에서 밀리더라도 끝까지 선두 경쟁을 하는 승부 의지를 선보이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용운 기자



배구팬 65% "선두 우리카드, 현대캐피탈 제압"

배구토토 매치 17회차 중간집계 우리카드, 상대전적 3승1패 우세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가 5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19~2020 V리그 남자부 우리카드·현대캐피탈전을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매치 17회차 투표용 중간집계 결과, 참가자들은 홈팀 우리카드의 우세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세트 승리 팀과 점수차를 맞히는 배구토토 매치 17회차 게임에서 1~3세트별 예상 승리 팀은 모두 홈팀인 우리카드 차지로 돌아갔다. 1세트에서 우리카드는 65.04%를 획득해, 34.96%를 기록한 현대캐피탈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 이어 우리카드는 2·3세트에서도 62.51%와 64.46%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으로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집계됐다. 원정팀 현대캐피탈의 투표율은 각각 37.49%와 35.54%로 나타났다.

더불어 1~3세트까지의 각 세트 별 예상 점수 차이에서는 1세트(37.87%), 2세트(32.47%), 3세트(35.00%) 모두 2점 차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리카드가 현대캐피탈과 경기를 펼친다. 현재 우리카드는 승점53(19승6패)을 기록하며 리그 선두에 올라있다. 이어 대한항공이 승점50(18승8패)으로 2위에 자리하고 있고, 현대캐피탈은 승점46(15승10패)으로 3위를 기록 중이다.

최근 분위기는 9연승을 질주하고 있는 우리카드가 좋다. 노련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세트 노재욱을 중심으로 나경복과 황경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때 우려를 샀던 외국인 선수 펠리페도 리그 득점 3위(490점)에 오르며 팀 승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번 시즌 상대전적에서도 우리카드는 현대캐피탈에게 3승1패를 거둬 우위를 점하고 있다. 양 팀의 마지막 맞대결이었던 지난 1월 15일 경기에서도 우리카드는 현대캐피탈에게 3-1의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안방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카드가 연승의 기세를 몰아 경기를 펼친다면, 토토판들의 기대와 같이 우세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한 판이다.

이번 배구토토 매치 17회차 게임은 5일 오후 6시 50분에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스포츠토토 이외 모든 스포츠배팅은 불법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온라인 발매사이트 베티맨을 제외한 모든 스포츠배팅은 불법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가 불법스포츠도박 및 유사발매 행위 근절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스포츠배팅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사이트 '베티맨'이 유일하다. 이외에 유사 사이트나 발매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당한다고 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벌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법스포츠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백한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셈이다.

만일 불법스포츠도박 또는 유사발매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도박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불법스포츠도박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는 물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행위자 신고와 판매자 관련 부정행위, 승부조작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대부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베티맨 2월 건전화 프로그램 2월이라 좋은 2유 참여하세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발매사이트인 베티맨이 2월의 건전화 프로그램 이벤트인 '2월이라 좋은 2유! 건강하고 건전한 토토즐거기'를 실시한다.

건강한 배팅문화에 앞장서고자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베티맨이 운영하고 있는 건전화 프로그램인 '셀프 진단평가'와 '셀프 구매계획', '건전구매 캠페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셀프 진단평가'란 자신의 게임 몰입도를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 '셀프 구매계획'은 스스로 한 주 동안 구매금액 한도와 횟수를 미리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건전구매 캠페인'은 건전구매 가이드라인 지키기를 통해 건전한 토토투매를 실천할 것을 약속하면 된다.

위 세 가지 건전화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에 참여할 경우 이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경품나비엔 온수매트(2명)와 헬리눅스 체어투(3명), 그리고 파리바케트 1만원 교환권(20명)을 증정한다. 또한 참여자 전원에게는 1인 1회에 한해 베티맨 사이트 내의 다양한 경품 응모가 가능한 배틀 500개를 지급한다.